

가수 김현성 “15년 만의 신곡발매, 다시 데뷔하는 기분”

‘근육 긴장성 발성 장애’로 오랜 시간 공백기 겪어
‘싱어게인2’서 만난 조영수 제안에 다시 가수 꿈꿔
“다시 사랑하려 해” “헤븐”·‘소원’ 장점 모두 들어가”

“이 한 곡을 낸 것만으로도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이에요. 다시 데뷔하는 기분입니다.”

가수 김현성(47)에게 지난 15년은 자신과 싸운 고된 시간이었다. 1997년 데뷔해 ‘소원’, ‘헤븐’(Heaven) 등으로 큰 인기를 얻었지만, 근육 긴장성 발성 장애를 겪으면서 본의 아니게 활동을 중단해야 했다.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 그를 두고 ‘끝났다’는 뒷말까지 나왔다. 그동안 쓰은 노력을 허사로 돌아가자 김현성은 가수의 꿈을 접고 평범한 직장인의 삶을 택했다.

하지만 노래는 포기할 수 없었다. 김현성은 예전 목소리를 되찾기 위해 퇴근 후 매일 발성 연습을 했다. 다시 무대에 서겠다는 목표 보다 목소리를 회복하고 싶다는 바람이 커졌다. 당시 연인이었던 아내 모니카가 그를 곁에서 지켜보며 큰 힘을 되어줬다. 그렇게 연습을 이어가던 중 전환점이 찾아왔다. 2021년 JTBC 경연 프로그램 ‘싱어게인2’였다.

당시 ‘43호 가수’로 출연한 김현성은 자신의 히트곡 ‘헤븐’을 원곡보다 몇 키 낮추어 불렀지만, 1라운드에서 탈락했다. 아쉽게 다음 무대에 오르지 못했지만, 그의 노래를 들은 작곡가 조영수로부터 다시 한번 가수를 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았다. 고민 끝에 전속 계약서에 사인한 그는 다시 가수를 꿈꾸기 시작했다. 그리고 오는 4일 새 디지털 싱글

‘다시 사랑하려 해’ 발매를 앞두고 있다.

최근 서울 강남구 넥스타엔터테인먼트 사옥에서 만난 김현성은 “믿기지 않을 만큼 기분이 좋고 감격스럽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3년 동안 준비하는 과정에서 돌아올 수 있을 거라는 보장을 스스로도 하지 못했다. 불과 몇 년 전만해도 생각하지 못한 일인데 이게 현실이 되었다”고 말했다.

“아무래도 고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요즘 유행하는 잔잔한 노래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연습하다 보니 음역대가 가장 먼저 회복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신곡의 고음은 ‘헤븐’의 가장 높은 음과 같은 정도로 제가 타고난 음역대와 거의 같아요. ‘이 부분을 버리고 갈 수 없구나, 이 부분은 내가 가져야 하는 부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시 사랑하려 해’는 작곡과 조명수와 작사가 김이나가 만든 발라드다. 이별 후의 아픔과 사랑을 갈망하는 감정을 묘사했지만, 당시 무대에 서는 김현성이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몇 달 전 달리는 차 안에서 노래를 처음 들었다는 그는 당시 상황을 또렷하게 기억한다고 했다. 조영수 작곡가로부터 ‘김현성 슈퍼 히트송’이라는 제목의 파일이 휴대전화로 왔고, 한참 망설이다 재생했다. 노래가 흘러나오자 아내는 옆에서 평평 울었고, 그는 울컥했다.

“도입 멜로디부터 후렴 부분까지 영수 형

이 이 곡을 잘 쓰는 줄은 알고 있었지만 진짜 마음을 많이 썼다는 걸 느꼈거든요. 저를 다시 잘 되게 해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보여 뭉클했어요. 연습하는 과정에서 절묘했던 건 ‘헤븐’과 ‘소원’의 장점을 다 녹여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감성적이고 부드러운 것, 섬세한 것들을 정말 잘 잡아주셨어요.”

김현성은 이번 곡을 후배 가수 규현에게 먼저 들려줬다고 한다. ‘싱어게인2’에서 자신의 노래를 듣고 눈물을 보였던 규현에게 고마운 마음에서도. 그는 “노래가 완성되면 젊으신 규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지”며 “매니저를 통해 리스닝 세션 참여를 부탁했는데 다행히도 바로 참여하겠다고 연락이 왔다. (규현이) 너무 좋아하면서도 걱정을 해주더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인적 친분은 없지만 당시 규현이 무대에서 보여주던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고 감사했다”며 “어떻게 보면 옛날 가수가 다시 한번 방송에 나와서 노래를 못 부르고 끝나버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규현이 그렇게 마음을 써주면서 스튜디오의 공기와 흐름이 바뀐 것 같았다”고 돌아봤다.

돌고 돌아 출발선에 선 김현성은 자신만의 음악을 선보이는 것이 목표다. 음역도 상당 부분 회복돼 트레이드 마크인 고음도 무리 없이 소화할 수 있다. 그는 “저는 륵 느낌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팝적인 섬세한 감정을 전달할 수 있는 가수”라며 “많은 분께 ‘김현성이 돌아왔다’는 말을 가장 듣고 싶다. 제가 바랐던 그 한마디를 듣기 위해 지금까지 해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지인들에게 ‘이 한 곡을 내는 데 3년을 했어요’라고 농담처럼 얘기해요. 개인적으로 어려



운 일들을 견디다 보니 견뎌해질 수 밖에 없고, 이런 상황에서 다시 무대를 준비할 수 있 는 건 기적 같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김현성은 대운 음악을 계속하고 싶어요.”

투바투 ‘러브 랭귀지’, 日 주요 음원차트 1위



그룹 ‘투로모루바이투게더’(TXT·투바투)의 디지털 싱글 ‘러브 랭귀지(Love Language)’가 글로벌 주요 음악 차트 최상위권에 안착했다.

4일 소속사 빅히트 뮤직에 따르면,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러브 랭귀지’가 일본 라인 뮤직 ‘송 톱 100’ 일간 차트(5월3일자)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 곡은 발매 당일(2일) 12위로 진입한 후 다음날 무려 11계단 순위를 끌어올려 정상을 밟았다.

또한 ‘러브 랭귀지’는 일본 오리콘이 발표한 최근 ‘데일리 디지털 싱글 랭킹’(5월2일자) 2위에 올랐다. 두 차트 ‘톱 5’에 든 해외 가수는 투모로우바이투게더가 유일하다.

아이튠즈 ‘톱 송’ 차트에서도 ‘러브 랭귀지’는 일본을 비롯해 멕시코, 칠레, 아르헨티나, 포르투갈 등 9개 국가/지역에서 1위를 찍었다.

투모로우바이투게더는 이러한 인기를 바탕으로 쟁쟁한 팝스타들의 곡과 함께 ‘러브 랭귀지’를 ‘월드 와이드 아이튠즈 송’ 차트 최상위권에 랭크시켰다.

‘러브 랭귀지’는 새로운 언어를 배워가듯 사랑하는 ‘너’를 연구하고 해독하고 더 알아가고 싶은 감정을 표현한 사랑 노래다.

청량한 곡 분위기와 어울리는 이들의 시원 시원하면서도 애너제틱한 군무, 일명 ‘단체 복근 노출’ 포인트 안무 등이 글로벌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투모로우바이투게더는 현재 월드 투어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월드 투어-액트 : 프로미스 EP2’를 진행 중이다.

백상의 선택은 ‘폭싹’ 아닌 ‘흑백요리사’…영화 대상 홍경표



네프리스 예능프로그램 ‘흑백요리사:요리계 급전쟁’이 올해 백상예술대상 방송 부문 대상

김태리, 아이유 넘고 최우수연기상 받아

을 받았다. 영화 부문 대상은 영화 ‘하일빈’의 홍경표 활용감독에게 돌아갔다. ‘폭싹 속았수다’는 4관왕에 오르며 최다 수상작이 됐다.

‘흑백요리사’는 5일 오후 서울 강남구에서 열린 백상예술대상 61번째 행사 주인공이 됐다. 당초 방송 부문 유력 대상 후보로는 넷플릭스 시리즈 ‘폭싹 속았수다’가 꼽혔으나 ‘흑백요리사’는 ‘폭싹 속았수다’를 밀어내고 최고상을 받아냈다. 영화 부문에선 작품·감독·배우가 아닌 촬영감독 홍경표에게 대상을 주는 파격적인 결정을 했다.

최다 수상작이 될 거로 전망했던 ‘폭싹 속았수다’는 예상대로 방송 부문 작품상(드라마·극본상·남녀 조연상(최대훈·염혜란) 등 4개 트로피를 휴대하며 가장 많은 상을 받은 작품이 됐다.

올해 가장 치열했던 부문인 방송 남녀 최우수 연기상 수상자는 ‘중증외상센터’의 주지훈,

‘정년이’의 김태리였다. 주지훈은 한석규·이준혁·박보검·변우석 등을 제쳤고, 김태리는 아이유·고민시·김혜윤·장나라를 넘어섰다. 아이유는 올해 최우수 연기상을 받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김태리에 가로 막혀 수상하지 못했다.

영화 부문 최우수 연기상은 ‘파일럿’의 조정석과 ‘리볼버’의 전도연이 받았다. 작품상은 ‘하일빈’이, 감독상은 ‘리볼버’의 오승욱 감독이 차지했다. 각본상은 ‘전, 란’의 박찬욱 감독과 신철 작가가 함께 순에 넣었다.

이와 함께 방송 부문 예능 작품상은 유재석·황정민·지석진·양세찬이 함께한 ‘뚱향고’에 돌아갔다. 이 작품은 유튜브 채널 ‘뜬뜬’이 만든 웹예능프로그램이다. 남녀 예능상은 신동엽과 이수지가 차지했다. 방송 부문 교양 작품상은 SBS TV 예능프로그램 ‘학전 그리고 뒷것 김민기’에게 돌아갔다.

스타쉽 新 보이그룹, 8인 ‘아이딧(IDID)’



그룹 ‘몬스타엑스’ ‘크래비티’ ‘아이브’ ‘키키’ 소속사인 스타쉽 엔터테인먼트가 새 보이그룹을 문성한다.

5일 스타쉽 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러브 랭귀지’가 일본 라인 뮤직 ‘송 톱 100’ 일간 차트(5월3일자)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 곡은 발매 당일(2일) 12위로 진입한 후

다음날 무려 11계단 순위를 끌어올려 정상을 밟았다.

김민재, 장용훈, 백준혁, 박원빈, 추유찬, 정세민, 박준환, 박성현이 데뷔조로 뽑혔다.

‘세미 파이널 라이브’가 끝난 후 일주일간의 파이널 투표와 이사회회의 평가 점수를 각각 50%씩 반영한 결과, 1등은 ‘올리운더’ 김민재가 차지하며 제일 먼저 아이딧 멤버 데뷔를 확정했다. 2등은 김민재와 선의의 라이벌 구도를 보여준 장용훈이었다.

아이브 ‘러브 라이브’도 넘겼다…세 번째 3억뷰 뮤비

K팝 4세대 대표 걸그룹 ‘아이브(IVE)’가 3억 대 조회 수 뮤비비디오를 추가했다.

5일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아이브의 두 번째 싱글 ‘러브 라이브(LOVE DIVE)’와 동명의 타이틀곡 ‘러브 라이브’ 뮤비비디오가 전날 오후 유튜브 조회수 3억 회를 돌파했다.

아이브는 이로써 첫 번째 정규 앨범 타이틀곡 ‘아이엠(I AM)’, 세 번째 싱글 타이틀곡 ‘에프터 라이크(After LIKE)’에 이어 세 번째 3억 뷔 뮤비비디오를 보유하게 됐다.

2022년 4월5일 공개된 ‘러브 라이브’는 사랑 할 용기가 있다면 언제든지 뛰어들어 보라는 당당하고 거침없는 메시지를 담은 곡이다.

뮤비비디오는 사랑의 신 ‘큐피드’로 변한 여섯 멤버의 모습을 담고 있다. ‘거울 춤’, ‘다이빙 춤’ 등 다채로운 퍼포먼스가 동화 같은 영상미와 어우러졌다.

아이브는 특히 ‘러브 라이브’로 데뷔 약 4개월 만에 음악방송 10관왕을 달성, 차세대 K팝 선두 주자로 우뚝 섰다. 또한 이 곡은 국내 최대 음원 사이트 멜론의 2022년 연간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다. 2022년 한국 애플뮤직과 틱톡(TikTok)에서 각각 가장 많이 재생되고, 사용된 음원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아울러 ‘러브 라이브’는 미국 타임지 선정 2022 ‘베스트 K-팝 노래’, ‘베스트 K-팝 앨범’으로 꼽혔다.

미국 티이탈(TIDAL)이 발표한 ‘K-팝: 베스트 오브 2022(K-pop: BEST OF 2022)’ 차트에 서도 1위를 펼쳤다.

이에 힘입어 아이브는 각종 시상식에서 음원 본상 외에도 ‘2022 멜론 뮤직 어워드’ 올해의 베스트송(대상), ‘2022 마마 어워즈(MAMA AWARDS)’ 올해의 노래(대상), ‘2022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 올해의 노래(대상), 제37회 골든디스크어워즈’ 디지털 음원 부문 대상, ‘제32회 서울가요대상’ 최고음원상 등을 받았다.

‘러브 라이브’는 지난해 발표된 2024년 멜론 연간 차트와 썸블차트 연간 ‘글로벌 K-팝 차트’, ‘디지털 차트’, ‘스트리밍 차트’에도 이름을 올리며 높은 인기를 입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날 오전 11시 기준 벅스와 지니뮤직 등 국내 주요 음원 사이트의 실시간 차



트에도 진입하며 발매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여전한 화제성을 드러냈다.